

혈세 8000억 지원으로 '10년' 번 한국지엠...과제는?

결정된 2종 외에 경쟁력 있는 신차 추가돼야

GM 뉴머니 중 3조 대출... 차입금 문제 여전

정부와 제네럴모터스(GM)간의 합의로 한국지엠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10년'을 벌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배리 앵글 제네럴모터스(GM) 사장은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서 산업부-GM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앞서 정부는 정부서술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GM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 한국 유치 ▲2023년까지 GM 자본매각 제한 ▲한국지엠에 대한 산업은행의 비토권 회복 등의 내용을 담은 '한국지엠 관련 협상결과 및 부품업체·지역지원방안'을 확정했다.

GM은 출자전환을 포함해 총 64억 달러(약 6조8000억원)를 지원하고, 2대 주주 산업은행도 7억5000만 달러(약 8000억원)를 지원하는 내용이 다. 이에 따라 GM은 한국지엠에 대한 기존 대출금 28억 달러를 올해 안에 출자 전환하고, 36억 달러는 새로 투자한다.

양측은 GM의 '덕튀' 방지를 위해 10년간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향후 5년간 GM이 한국지엠의 지분을 매각할 수 없도록 하고, 그 이후 5년은 35% 이상 1대 주주를 반드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로서는 8000억원의 세금을 투입해 한국지엠이 10년간 한국에서 떠날 수 없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얻

은 셈이다. 정부 측은 GM이 한국에 아시아태평양 본부를 설치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백 장관은 11일 MOU체결식에서 "아태지역본부 한국 유치는 한국 자동차 산업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그동안 GM에 한국에서 중장기적 사업의지를 제시해야 한다고 요청했는데 이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조치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 역시 "한국에 아태지역본부를 가지고 온 것은 의미가 있다"며 "지역 헤드쿼터가 한국에 있으면 GM이 한국상황을 잘 알게 되고, 당연히 한국 중심의 지역 전략을 짜게 되니 장기적 사업 운영의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협상에서 100% 만족이 어디있겠느냐"며 "이 정도면 서로가 적당히 만족한 협상"이라고도 평가했다.

하지만 문제는 양측이 투입하는 '뉴머니'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GM이 투입하는 36억달러 중 28억 달러(약3조원)는 회전대출(매년 만기 연장 여부 결정), 8억달러(9천억원)는 출자전환 형식이다. GM이 대출 금리를 기존 4.8~5.3%에서 3.48% 수준으로 1%p 이상 인하키로 했지만, 한국지엠의 적자 원인인 분사 차입 문제가 해소되지 못했다는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GM 협력 MOU 체결식'에 참석한 백운규(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배리 앵글 지엠총괄 부사장 겸 해외사업부 본부장, 카터 카젠(왼쪽) 한국지엠 사장이 양해각서에 사인 뒤 인사를 나누고 있다.

평가다. 신규 분사 차입금 3조원에 대한 연간 이자는 1044억원에 달한다.

반면 산업은행이 투입하는 7억5천만달러는 전부 주식으로 바뀌는 출자금으로,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아태지역본부 역시 중국이 제외된데다 주요 생산시설이 충남미로 이전한 상황이라 별다른 실익이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죽으나 사나 15만명의 일자리가 걸려있는데 어찌겠느냐"며 "협력업체도 줄

줄이 걸렸고, 가뜰이나 자동차 업계가 안 좋은 상황 아니냐"고 말했다.

한국지엠이 제대로 된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100만대 이상 생산체계를 유지하고 지속적 흑자를 내려면 현재 배정이 결정된 2종 외에 경쟁력을 가진 신차가 추가 배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영악화의 주 요인이 된 이진가격과 높은 생산원가는 꼭 해결돼야 할 과제다. 군산공장 근로자 전환배치 문제,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 등 노사관계 역시 한국지엠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국지엠은 국내 다른 완성차업체와 비교해 높은 매출원가율을 보인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경영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한국지엠 비정규직은 올해 350명 이상 해고됐고, 이들은 해고자 복지 없이 혈세지원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로 상처받은 노조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 역시 한국지엠의 과제"라고 말했다. /뉴시스



넷마블 전략 MMO

'아이언쓰론' 16일 출시

넷마블이 자사의 새로운 전략 MMO 게임 '아이언쓰론'을 오는 16일 전 세계 251개국에 정식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아이언쓰론은 건설과 생산, 전투 등 전략 게임 고유의 플레이에 영웅 육성 과 같은 RPG 요소를 가미한 차세대 전략 MMO(Massively Multiplayer Online: 대규모 다중접속) 게임이다. 지난달 19일 미디어 쇼케이스를 통해 공개돼 전투에 특화된 다양한 전장 콘텐츠, 독특한 영웅 시스템, 360도 풀 3D 그래픽 등 차별화 된 요소들로 큰 관심을 모았다.

이 게임의 가장 큰 장점은 글로벌 규모의 온라인 플레이에 있다. 개발 단계에서부터 글로벌 시장 출시를 염두에 두고 개발돼 전 세계 이용자와 협력, 경쟁이 가능하다. 특히 연맹을 기반으로 자유도 높은 전략을 구사할 수 있어, 하나의 왕성을 놓고 펼치는 전 세계 이용자들의 치열한 두뇌 싸움이 가장 큰 흥미 요소가 될 전망이다.

다양한 전투 모드도 눈길을 끈다. 아이언쓰론에는 차원전, 배틀로얄, 팀 데스매치와 같이 이벤트 매치 형태로 치러지는 다양한 전투 모드가 포함돼 있다. 이용자는 각 모드에서 주어지는 병력만을 활용해 승부를 가리게 되며, 자신이 보유한 부대나 자원 손실 없이 전투 본연의 재미를 만끽할 수 있다. /뉴시스

캠코, 1148억원 규모

입류재산 공매... 오늘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4~16일 3일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전국의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 91건을 포함한 1148억원 규모, 741건의 물건을 공매한다고 11일 밝혔다.

공매물건은 세무사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이 375건 포함됐다.

공매 입찰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입찰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할 기울여야 한다. 세무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도 있다.

신규 공매대상 물건은 16일 온비드를 통해 공고한다. /뉴시스

기재부 "생산·투자 감소... 소비 증가세 지속"

소비, 승용차 등 중심으로 ↑

기획재정부는 11일 최근 우리경제와 관련, "1~2월 높은 기저 영향을 등으로 광공업 생산과 투자가 조정을 받는 가운데 소비는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이날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이 같은 진단을 내렸다.

최근 지표를 보면 생산과 투자는 감소하는 가운데 소비만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냈다.

3월 중 산업생산은 전월에 비해 감소세를 나타냈다.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와 기계장비 등을 중심으로 감소세로 전환(0.8%→-2.5%)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보험 등이 감소했으나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등이 늘면서 전월보다 증가(-0.2%→0.4%)했다.

소비는 승용차·통신기기 등 내구재 및 의복 등 준내구재 중심으로 전월 0.8%에서 2.7%로 늘었다. 설비투자는 운송장비는 증가했지만 기계류 투자가 감소하면서 전월대비 감소세로 전

환(1.1→-7.8%)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계경제 개선, 투자심리 회복 등에 힘입어 회복세가 지속될 전망"이라며 "실업률 등 고용 상황은 미흡한 가운데 미 금리인상 등 대내외 위협요인이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내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경제회복세가 일자리·민생개선을 통해 체감될 수 있도록 2018년 경제정책방향 및 청년일자리 대책, 2단계 지역대책 등 정책 노력을 가속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11번가 'LG G7 ThinQ' 자급제폰 사전판매

SK플래닛(사장 이인찬) 11번가는 LG G7 ThinQ(G7) 자급제폰 사전판매를 11일부터 17일까지 온라인 단독으로 진행한다.

G7은 LG전자의 최신 전략 스마트폰이다. 야외에서도 밝고 선명한 화질과 대상과 주변 환경에 따라 자동으로 카메라 설정을 최적화해주는 인공지능 카메라를 탑재했다. 또한 '블박스 스피커' 기능으로 스피커 없이도 풍부한 사운드를 자랑한다.

11번가가 판매하는 자급제폰은 통신사 약정없는 공기계 스마트폰으로 내가 원하는 통신사를 선택해 요금제를

마음대로 골라 가입할 수 있으며 각 통신사가 제공하는 25% 선택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다.

11번가에서 LG G7/G7+ 자급제 모델을 구매 하면, ▲카드할인 쿠폰 8%(8만원 이상 최대 20만원) ▲최대 22개월 무이자 할부, ▲T멤버십 최대 3천 원 차감할인, ▲OK캐쉬백 1% 적립(최대 1만5,000원, 등급별 차등) 등 혜택이 제공된다. /뉴시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